

제7장 축제와 관광

1. 축제

1) 만세보령문화제

(1) 만세보령문화제의 유래

1988년부터 10월 1일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여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있다. 또한 문화제를 통하여 전통 민속을 재현하여 향토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단합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996년까지는 매년 개최하다가 1998년부터는 2년마다 짝수해에 실시하고 있다.

제1회 만세보령문화제에서는 전야제로 광산제, 풍년제, 풍어제를 지내고 본행사에는 등바루시연, 화합경기, 체육경기를 연계행사로 향토사진전을 개최하였으나 횡수를 거듭함에 따라 행사가 다양해지고 수준도 향상되는 등 많은 발전을 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만세보령문화제 행사 개요(2008년의 경우)

- ① 기 간 : 2008년 9월 30일(화) - 10월 1일(수)
- ② 장 소 : 보령종합경기장 및 시내일원
- ③ 행사내용

가. 전야행사(9월 30일)

- 시조경창대회 ○ 충청수영 재판 재현 ○ 도미부인 경모제
- 풍년제 ○ 만세보령 백일장·시화전 ○ 향토문화연구발표회
- 한내돌다리밟기 ○ 청소년 그린음악회

나. 본행사(10월 1일)

- 1부: 개막식, 식후공연

- 성화채화 ○ 개막퍼레이드 입장
- 초청공연
(타악공연, 널뛰기 달인 시범, 평양예술단 공연, 십팔기 보존 시연, 고적대 공연)

□ 2부 : 체육행사

- 100m 경기(남녀) ○ 400m 계주(혼합) ○ 배구경기 ○ 족구경기 ○ 축구경기

□ 3부 : 민속경기

- 장기 ○ 윷놀이 ○ 줄다리기 ○ 씨름 ○ 화계놀이 ○ 제기차기
- 단체 줄넘기 ○ 농악경연 ○ 힘자랑 ○ 대박 터뜨리기

다. 연계행사

- 특산물 전시판매 ○ 머드화장품 판매 ○ 만세보령특미 시식 ○ 별미장터
- 내건강 알아보기 코너 ○ 민속체험장
- 최치원 선생 추모 전국 서예대전 입상작 전시 ○ 한국 야생화 전시

(3) 만세보령문화제 행사 모습

① 전야행사



도미부인경모제



한내돌다리 밟기



충청수영 재판 재현

② 본행사(개막식, 식후공연)



성화 점화



입장식



입장식



만세보령대상 시상식



고적대 공연



타악 공연



평양예술단 공연



십팔기보존 시연



널뛰기달인 시범

③ 본행사(체육행사, 민속경기)



달리기



장기



힘자랑



축구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



씨름



농악경연



대박 터뜨리기

④ 연계행사



머드화장품 판매



별미장터



야생화 전시

2) 보령 머드축제

(1) 머드 축제의 유래

1996년 대천해수욕장 인근 청정 갯벌에서 채취한 양질의 바다 진흙을 가공하여 머드팩 외 16종의 화장품을 개발하였다. 보령산 머드화장품은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고, 외국산 제품에 비하여 게르마늄, 미네랄, 벤토나이트 성분 함량이 높아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광대학교 김재백 박사팀 등 국내 우수 연구기관으로부터 입증되었다. 2001년에 ISO 9002 인증 획득 및 미국식품의약국(FDA), 일본 후생성 안정성검사 통과, 2006년 국제 화장품 원료집 등재 등 대외적인 이미지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보령머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상품화로 성공한 '보령머드화장품'과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지역 관광명소를 홍보코자 1998년 7월에 처음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2) 머드 축제의 연혁

① 제1회 보령머드축제(1998. 7. 16~7. 19)

보령머드축제추진위원회 주관, 문화관광부·한국관광공사·충청남도 후원으로 4일간 열렸다. 지역민 중심의 '만세보령문화제'와 달리 보령의 특산품인 머드를 중점 홍보하여 머드의 대중화를 꾀하고 「머드=보령」이라는 상징성을 추구하며 건강한 여름축제, 외국인도 참여하는 국제축제로 기획 추진하였다.

② 제2회 보령머드축제(1999. 7. 15~7. 18)

첫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머드미끄럼, 로데오 등 체험 이벤트의 대폭 확대와 외래 관광객의 참여가 많았다. 외래 관광객 유치 및 체험 이벤트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③ 제3회 보령머드축제(2000.7.14~7.17)

‘머드와 미용’이라는 주제로 체험행사의 다변화와 전국머드피부미용대회 개최, 보령 관내 관광지 간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연계 행사의 대폭 실시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

④ 제4회 보령머드축제(2001. 7. 14~7. 20)

고비용 단순 관람형 공연행사를 줄이고, 관광객 체험행사를 대폭 확대 실시하였으며, 특히 외지 관광객 중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높아 국제적 관광 잠재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머드하우스의 건립으로 축제기간은 물론 연중 머드화장품 전시 판매 및 마사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제5회 보령머드축제(2002. 7. 20~7. 26)

‘보령 머드화장품의 세계화’란 주제 속에 머드하우스와 연계 행사장의 일원화로 축제 집중도 상승과 해변셀프마사지, 머드왕 선발대회 등 축제의 주체성을 나타낸 프로그램을 다변화하였으며, 캐릭터상품 개발, 전시 판매장 운영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뚜렷하게 증가했다.

⑥ 제6회 보령머드축제(2003. 7. 19~7. 25)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한 단계 승격 지정되었으며, 인근 해안도로변 갯벌에서 갯벌극기훈련체험, 갯벌마라톤대회를 실시하였고, 기관단체장 및 진행요원의 머드캐릭터 복장 착용으로 시선을 끌었다. 중앙방송 특집 생방송, 조선일보 2면 전면 게재, 축제 홈페이지 구성으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였다.

⑦ 제7회 보령머드축제(2004. 7. 16~7. 22)

문화관광부 지정 2년 연속 우수축제로서 체험 시설물의 업그레이드, 일본 후쿠보연주단 초청공연 등, 위탁 대행 행사의 많은 협찬으로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상품대상 수상, 지역혁신 우수사례 선정, 한국의 축제 대평가 결과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다.

⑧ 제8회 보령머드축제(2005. 7. 16~7. 22)

문화관광부에서 8회 연속으로 지정된 축제로 2004년 미스유니버스인 제니퍼 호킨스가 참여하여 세계적인 화제였으며, 상설체험 시설인 머드체험관의 개관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붐이 일어나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였다.

⑨ 제9회 보령머드축제(2006. 7. 15~7. 21)

보령머드축제가 2006년도 문화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세계 속의 머드, 머드 속의 웰빙’이란 주제로 체험행사 19개, 기획 전시행사 11개, 연계행사 16개, 야간행사 11개 등 모두 5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2006년부터는 기존 머드체험행사 이외에 갯벌스키체험과 머드핸드프린팅, 머드서핑, 머드도자기체험 등이 추가되어 관광객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⑩ 제10회 보령머드축제(2007. 7. 14~7. 22)

보령머드축제가 2007년도 문화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세계 속의 머드, 머드 속의 세계’란 주제와 ‘머드따라 떠나는 일상 탈출’이라는 슬로건으로 축제기간이 2일 연장되고, 머드체험장소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7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수준 높은 야간 이벤트를 개최하여 체류를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또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여 머드화장품의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였고,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문화대상(스포츠한국)을 수상하였으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행정자치부, 한국일보)을 수상하고, 세계축제 및 이벤트협회 금상(IFEA)을 수상하였다.

〈보령머드축제 회별 포스터〉



1회(1998)



2회(1999)



3회(2000)



4회(2001)



5회(2002)



6회(2003)



7회(2004)



8회(2005)



9회(2006)



10회(2007)

(3) 제11회 머드축제(2008. 7. 12-7. 20)

문화관광부가 2008년 처음으로 도입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보령머드축제는 국비와 도비 16억 원을 지원받고,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2008년 제11회 보령머드축제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체험행사

- 제6회 보령갯벌장애물마라톤대회
- 머드챌린저
- 갯벌 극기체험
- 머드 슈퍼슬라이드
- 머드 핸드프린팅
- 머드 해변셀프마사지
- 칼라머드존
- 전신 머드마사지탕
- 머드 판타지폭포
- 머드 장애물
- 대형 머드탕
- 머드 도자기, 머드 캐릭터 만들기
- 머드 커플슬라이드
- 침단 머드마사지-머드 및 해수탕 체험
- 머드교도소
- 머드키즈랜드
- 머드 인간마네킹
- 머드 비누만들기
- 머드 과도슬라이드
- 머드 도전장
- 벌스키 체험
- 머드 씨름장
- 머드 몹씬(Mob Scene)
- 제6회 전국 대천해변 머드 풋살대회



② 연계행사

- 관광객과 함께하기
- 국제축제 및 이벤트협회(IFEA)초청, 머드축제 국제화 포럼

- 제9회 머드 피부미용 경진대회
- 웰컴투코리아(연예인) 팬 사인회
- 국내외 유명 연예인 홍보대사 운영
- 거리 퍼포먼스(캐릭터인형) 운영
- 보령 머드화장품 세계화 학술세미나
- 거리 퍼레이드
- 머드화장품 수출 상담회
- 머드인과 함께하는 우리가락
- 요트 퍼레이드
- 어린이 머드캐릭터 이름표 달아주기
- 머드 바디페인팅
- 제11회 보령머드축제 전국사진공모전
- 관광지 순환이벤트
- 머드미스터 선발대회



거리 퍼레이드



머드미스터 선발대회



홍보대사 위촉



거리 퍼레이드



학술 세미나



세계피부미용 경진대회

③ 기획 전시행사

- 건강체험관
- 머드화장품 전시판매
- 축제 캐릭터상품 전시판매
- 물사랑 체험관
- 관광교통 정보센터 운영
- 머드축제, 관광보령 사진전시
- 보령특산물 전시판매
- 관광보령 홍보관

④ 야간행사

- 해변 국악공연
- 클래식 의 밤
- 보령머드 대학가요제

- 머드 B-boy 퍼포먼스 ○ 세계 문화공연 한마당 ○ 한여름밤의 머드콘서트
- 머드왕 선발대회 및 축하공연 ○ 보령머드 외국인 가요제
- Overnight Fest ○ 개막식 ○ 폐막식 ○ 불꽃판타지



대학가요제



B-boy 퍼포먼스



외국인 대학가요제



머드왕 선발대회



세계문화공연 한마당



클래식의 밤

3) 기타 축제

(1) 대천해변 통기타 축제

대천해수욕장 여인의 광장 일원에서 매년 8월 초 (사)대천관광협회 주관으로 여는 축제이다. 추억의 퍼포먼스, 통기타와 함께하는 생맥주페스티벌, 통기타가요제, 해변 통기타 음악 축제 공연 등을 한다.



대천해변 통기타 축제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2)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축제

무창포 해수욕장 번영회에서 3월 초에서 4월 중순까지 여는 축제이다. 2008년도에는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30일 간 열었다.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연예인 축하공연, 노래자랑, 도다리잡이 현장체험, 주꾸미잡이 현장체험, 주꾸미 디스코대회 등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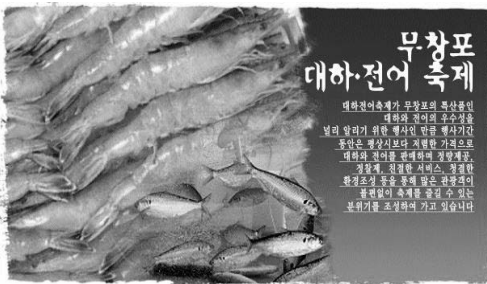
(3)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1999년부터 (사)웅천청년회의소 주관으로 시작된 축제로 7-8월 중 바닷물이 많이 나가는 사리 때를 택하여 행사를 한다. 무창포해수욕장에서 보령시 교육장배 사생대회, 농악놀이, 합창단공연, 그룹사운드공연, 가야금공연, 횃불대행진, 불꽃놀이 등의 행사를 한다.



(4)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무창포해수욕장 번영회 주관으로 매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1개월 동안 여는 축제이다.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무창포해수욕장에서 연예인축하공연, 장기자랑, 디스코경연, 신비의 바닷길 체험, 해산물먹기대회 등의 행사를 한다.



(5) 성주산 단풍축제

매년 10월 말에 3일간 열리는 축제이다. 성주산 단풍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01년부터 시작하였다. 석탄박물관 가로공원에서 단풍노래자랑, 마술쇼, 서커스공연, 청소년 댄싱, 페이스페인팅, 족구대회, 윷놀이, 줄다리기, 제기차기 등의 행사를 한다.



(6) 천북 굴축제

매년 12월 초 천북면 장은리 일원에서 보령천북 굴축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축제이다. 2001년부터 시작되었다. 풍물놀이, 초청가수 공연, 굴요리 시식, 불꽃놀이, 관광객 및 주민 노래자랑 등의 행사가 이루어진다.



(7) 해넘이 행사

매년 12월 31일 대천해수욕장에서 대천관광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이다. 레크레이션, 사물놀이, 송년메시지 시낭송, 해넘이 감상, 풋볼 소원빌기, 시립합창단 공연, 통기타가수 공연, 힙합댄스, 관광객 장기자랑 등의 행사를 한다.



(8)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사계절 이벤트이다. 연예협회 주관으로

열린다. 사물놀이, 힙합댄스 공연, 에어로빅, 민요 및 한춤 공연, 락그룹 공연, 레크레이션, 청음노래방, 홀라후프 돌리기, 즉석 장기자랑, 폭소퀴즈열전, 막춤대결 등의 행사를 한다.

2. 관 광

1) 관광특구

(1) 대천해수욕장

사계절 관광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은 우리나라 서해안 제일의 해수욕장으로 길이 3.5km, 폭100m에 달하는 백사장은 단연 일품이다. 모래질은 조개껍질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잘게 부서져 모래로 변모한 것이다.

천연적으로 빼어난 해수욕장의 조건에 걸맞게 각종 휴양 편의시설, 문화예술 공간도 서해안에서는 으뜸으로 지난 '98년 8월 한국일보와 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편의시설 등 주변 환경평가에서 전국해수욕장 중 영예의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개장 기간 중에는 보령머드축제, 모래조각전 등 다양한 행사와 다보도까지 운행하는 유람선을 타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

관광지 개발사업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1932년 7월 15일 공식개장

경남철도주식회사의 승객유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설 설비와 여객운임 할인 등을 통한 해수욕객 유치와 운영, 지역 유지의 노력으로 해수욕장통로 도로를 개수하면서 서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으로 개장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전국에 유명하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대천해수욕장은 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서해안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해수욕장이다.(2008년 제76회 대천해수욕장 개장)

○ 1933년 방갈로 시설

○ 1936년 8월 대천해수욕장 경찰관 출장소 설치

○ 1956년 7월 위생시설 설치

○ 1958년 7월 대천해수욕장임시우편소 설치

○ 1969년 1월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지정(A=840,000m²) - 교통부 공고 제2335호

- 1983년 11월 관광지 면적 변경지정(A=2,150,000m²) - 교통부 공고 제66호
- 1988년 10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A=2,150,000m²) - 충청남도 고시
- 1993년 3월 대천해수욕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금강유역환경청
- 1993년 11월 관광지 제1지구 조성사업 준공(A=437,729m²)
- 1993년 12월 관광지 변경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A=2,150,000m²)
-보령시고시 제1995-84호
- 2002년 4월 관광지 제2지구 조성사업 준공(A=613,480m²)

(3지구)

- 2002년 7월 조성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용역 착수
- 2004년 1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협의 완료 - 금강유역환경청
- 2004년 6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건설교통부
- 2005년 5월 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 - 충청남도고시 제2005-90호
- 2005년 8월 조성계획 변경결정 승인 - 충청남도
- 2005년 12월 보상협의
- 2008년 현재 제3지구 조성사업 추진 중



대천해수욕장



대천해수욕장 1지구

(2) 무창포해수욕장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¹⁾ 무창포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1.5km 수심 1~2m, 백사장 폭 50m의 해수욕장으로 주변에는 송림이 울창하다. 매일 음력 보름과 그믐

1) 보령군지(1991)의 기록을 따른 것이고, 일제시대 신문기사에서 확인된 것은 1931년이다.

사리 때, 물이 빠지면 석대도까지 연결되는 1.5km에 달하는 바닷길이 드러나 많은 관광객이 모여든다. 관광지 개발사업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1986년 8월 관광지 지정(A=0.31km²) - 건설부고시 제29호
- 1988년 6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A=0.2716km²) - 교통부
- 1998년 6월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A=0.2716km²) - 충청남도고시 제129호
- 1990년 11월 관광지 조성사업 착공
- 2003년 9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 충청남도
- 2005년 9월 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승인 - 보령시
- 2007년 8월 제4차 충남권 관광개발계획 변경(충청남도)-석대도지구 포함



무창포해수욕장의 바다갈라짐 현상



무창포항의 낙조

(3) 죽도

‘대섬’이라고 불리는 죽도는 기암절벽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졌는데, 남포방조제 건설로 육지와 연결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온다. 남포방조제는 지난 1985년 2월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착공하여 1999년 12월 완공한 방조제로 사업기간이 무려 14년 10개월이 소요되었다. 관광지 개발사업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1990년 4월 관광지 지정(A=0.062km²) -교통부 고시 제90-6호
- 1992년 5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 교통부
- 1994년 9월 관광지 조성계획 시행 허가 - 보령군수
- 1995년 4월 관광지조성 착공
- 2000년 7월 죽도관광지 변경 지정(A=73,380m²)

- 2001년 3월 관광지 조성계획 3차 변경승인
- 2005년 4월 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승인(충청남도지사)
- 2007년 9월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보령시청)



죽도 전경



죽도의 남쪽 해안

2) 특구 이외의 관광자원

(1) 역사 문화자원(문화재편 참조)

① 국보

- 대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大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국보 제8호)
: 성주면 성주리 80-4

② 보물

- 성주사지5층석탑(보물 제19호) : 성주면 성주리 73
- 성주사지중앙3층석탑(보물 제20호) : 성주면 성주리 73
- 성주사지서3층석탑(보물 제47호) : 성주면 성주리 74

③ 사적

- 성주사지(사적 제307호) : 성주면 성주리 74
- 고려청자매장구역(사적 제321호) : 주교면 송학리 죽도 앞바다

④ 천연기념물

- 외연도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36호) : 오천면 외연도리 산293

⑤ 중요민속자료

- 원홍주등육군상무사단제비(元洪州等六郡商務社壇祭碑, 중요민속자료제30-4호)
: 청소면 죽림리

540 • 축제와 관광

- 선고인합동위령비(先故人合同慰靈碑, 중요민속자료 제30-4호) : 청소면 죽림리
- 반수 정건모 한식제담 기증 기념비(班首鄭建謨寒食祭畚寄贈紀念碑, 중요민속자료 제30-4호) : 청소면 죽림리

⑥ 근대건축물

- 청소역 : 근대건축물 제305호

⑦ 충청남도지정 유형문화재

- 성주사지동3층석탑(유형문화재 제26호) : 성주면 성주리 73
- 보령수부리귀부 및 이수(유형문화재 제32호) : 웅천읍 수부리 산13
- 성주사지석등(유형문화재 제33호) : 성주면 성주리 72
- 보령관아문(保寧官衙門, 유형문화재 제40호) : 주포면 보령리 262-2
- 남포관아문 <진서루, 내삼문, 외동헌>

藍浦官衙門 <鎮西樓,內三門,外東軒>, (유형문화재 제65호) : 남포면 읍내리 378

- 오천수영관아(유형문화재 제136호) : 오천면 소성리
- 대천한내돌다리(유형문화재 제139호) : 동대동 829-1
- 보령금강암석불 및 비편(유형문화재 제158호) : 미산면 용수리
- 보령유격장군청덕비(유형문화재 159호) : 오천면 소성리

⑧ 충청남도지정 무형문화재

- 보령남포벼루제작(무형문화재 제6호) : 청라면 의평리 574 김진한

⑨ 충청남도지정 기념물

- 충청수영성(기념물 제9호) : 오천면 소성리 931
- 남포읍성(기념물 제10호) : 남포면 읍내리 378-1
- 김좌진장군묘(기념물 제73호) : 청소면 재정리 14
- 남포향교대성전(기념물 제111호) : 남포면 옥동리 29-1
- 보령향교대성전(기념물 제112호) : 주포면 보령리 47-11
- 보령장현리귀학송(기념물 제159호) : 청라면 장현리

⑩ 충청남도지정 민속자료

- 보령독산리독살(민속자료 제16호) : 웅천읍 독산리

⑪ 충청남도지정 문화재자료

- 오천향교대성전(문화재자료 제137호) : 오천면 교성리 166
- 화암서원(문화재자료 제138호) : 청라면 장산리 산27-1
- 보령리5층석탑(문화재자료 제139호) : 주포면 보령리 266

- 성주사지석계단(문화재자료 제140호) : 성주면 성주리 72
- 용암영당(문화재자료 제141호) : 미산면 용수리 621
- 수현사(문화재자료 제142호) : 미산면 용수리 산 27
- 광성부원군사우(문화재자료 제143호) : 청소면 재정리 산27-2
- 최고운유적(문화재자료 제145호) : 남포면 월전리 산31
- 보령성곽(문화재자료 제146호) : 주포면 보령리 15-6
- 보령경찰서 망루(문화재자료 제272호) : 대천동 171
- 신경섭가옥(문화재자료 제291호) : 청라면 장현리 688
- 편무성가옥(문화재자료 제304호) : 천북면 신죽리 401
- 대천 왕대사마애불(문화재자료 제317호) : 내항동 산97
- 이지환선생묘(문화재자료 제320호) : 주교면 고정리 산27-3
- 보령죽청리고인돌(문화재자료 제372호) : 웅천읍 죽청리
- 성주사지석불입상(문화재자료 제373호) : 성주면 성주리
- 보령백운사부도(문화재자료 제374호) : 성주면 성주리

⑫ 사찰

- 백운사 :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에 있는 오래된 전통사찰로 충청남도문화재자료 제374호 백운사부도가 있다. 조용하고 오염되지 않은 풍광이 아름답다.
- 중대암 : 미산면 용수리
아미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전통사찰이다. 오래된 부도 3기가 있고, 계곡이 아름답다. 아미산을 오르는 등산로에 위치해 있다. 과거에는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이기도 하다. 위에는 상대암이 있다.
- 상대암 : 아미산 정상부에 있는 절이다. 풍천임씨의 묘막이었다가 나중에 사당이 되고, 절이 되었다. 주변 경치가 아름답고, 영천(靈泉)으로 불리는 샘물이 좋다.
- 금강암 : 미산면 용수리
양각산 허리에 있는 절이다. 절 안에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8호로 지정된 보령금강암석불 및 비편이 있다. 보령댐과 어우러진 주변 경치가 좋고, 절을 통하면 양각산을 쉽게 오를 수 있다.
- 단원사 : 웅천읍 수부리
웅천읍 수부리 우리티재 밑에 있는 절이다.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된

보령수부리귀부 및 이수가 있어 오래된 절이나 건물은 새로 지었다. 주변 풍광이 아름답다.

○ 선림사 : 오천면 소성리

오천면 소성리 상사봉 아래에 있는 오래된 전통사찰이다. 상사봉을 오르는 사람들이 거쳐 가는 절이고, 주변 경치가 아름답다.

○ 왕대사 : 내항동

왕대산 허리에 있는, 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317호 대천왕대사마애불이 있는 절이다. 절은 새로 지었고 주변 경치가 아름답다.



백운사



금강암



선림사



중대암



단원사



왕대사

(2) 자연자원

① 산

○ 오서산(烏棲山)

보령시와 청양군, 홍성군이 경계(境界)하는 해발 790.7m의 산이다. 서해 연안의 산 중에서 가장 높아 서해안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가을에는 정상부의 갈대밭이 유명하고, 산자락에는 명대계곡, 귀학송, 월정사, 천축암, 오서산성, 오서산 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보령 지역에서는 청라면 장현리 명대계곡, 청소면 성연리 등에서 오른다.

○ 성주산(聖住山)

보령시 중앙부의 동쪽에 있는 산지를 통칭한다. 최고봉은 해발 680m이다. 백월산-

성태산-문봉산-장군봉-왕자봉-바래기재로 이어지는 능선과 문봉산-비로봉-전망대-문수봉-칠성봉-피깁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포함하는 큰 산이다. 과거에는 곳곳에서 석탄을 채굴하였다. 산자락에는 심연동계곡, 물탕골계곡, 화장골계곡 등 계곡과 성주사지, 백운사 등의 절, 폐광을 이용한 냉풍욕장, 성주산 자연휴양림 등의 볼거리가 있다. 등산로는 백월산에서 성태산으로 향하는 능선길, 광불사에서 왕자봉으로 오르는 길, 바래기재로 오르는 길, 심원동에서 오르는 길, 백운사로 오르는 길 등 다양하다.

○ 옥마산(玉馬山)

보령시 명천동과 남포면 동쪽에 병풍처럼 두른 해발 601m의 산이다. 성주산과 같은 줄기이다. 과거에는 산의 곳곳에서 석탄을 채굴하였다. 산 정상에는 통신중계탑이 설치되어 있고, 정상 부근 능선에는 패러글라이더 이륙장이 있다. 산의 동쪽에는 석탄박물관, 청소년수련관, 서쪽에는 남포읍성, 남포향교, 경순왕 영모전 등이 있다. 등산로는 대영사에서 오르는 길, 명천폭포에서 오르는 길, 청소년수련관에서 오르는 길, 말재에서 오르는 길 등이 있다.

○ 아미산(峨嵋山)

보령댐 동쪽에 있는 보령시와 부여군이 경계하는 높이 638.5m의 산이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어 능선부로 등산하기에 알맞다. 산허리에는 산암사, 중대암, 상대암, 광덕사 등의 절과 파주염씨 염제신과 염국보를 모신 사당인 수현사가 있고, 산자락에는 적시골, 중대골, 백제골 등 여러 골짜기가 있다. 등산로는 중대암을 통하는 길, 도화담 산암사를 통하는 길, 수리바위로 오르는 길, 도흥리에서 오르는 길 등이 있다.

○ 백월산(白月山)

보령시 청라면과 청양군 남양면 사이에 있는 해발 570m의 험준한 산이다. 산허리에는 운흥사가 있는데 돌탑으로 유명하다. 등산로는 율티저수지로 오르는 길이 있다.

○ 양각산(羊角山)

보령댐 동쪽에 있는 웅천읍과 미산면의 경계가 되는 해발 411.5m의 산이다. 보령댐과 어우러져 풍광이 뛰어나고, 산허리에는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58호 보령금강암 석불 및 비편이 있는 금강암이 있고, 자락에는 경주이씨 이제현의 사당인 삼사당(三思堂)이 있다. 등산로는 삼사당에서 오르는 길, 보령댐 휴게소에서 오르는 길, 금강암에서 오르는 길 등이 있다.

○ 잔미산

남포면 옥서리와 웅천읍의 두룡리·대천리·성동리·수부리로 둘러싸인 해발 416.8m의 산이다. 남북으로 긴 능선을 이루고 있다. 북쪽에는 옥미봉 봉수대가 있고, 중앙에는 대천리산성이 있으며 북동쪽 골짜기에는 고려시대 남포현의 치소를 보호하던 수부리산성이 있다. 잔미산이라는 이름도 꼭대기에 있는 성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등산로는 이어나재에서 오르는 길, 대천리 철로 건널목에서 오르는 길, 남포면 옥서리 새아니재로 오르는 길, 수부리 불근댕이 마을로 오르는 길 등이 있다.

○ 진당산(鎭堂山)

조선시대 보령현의 진산(鎭山)으로 청라면과 주포면 사이에 있다. 높이 351m이다. 산 꼭대기에는 테피식 산성인 진당산성이 있고, 돌로 쌓은 옛 당집이 있다. 산자락에는 보령읍성, 보령향교, 보령리5층석탑, 주포학생야영장, 팔각정 등이 있다. 등산로는 학생야영장으로 오르는 길, 질멸저수지로 오르는 길, 질재로 오르는 길 등이 있다.

○ 주림산(珠簾山)

주산면 서쪽에 있는 높이 348.8m의 산으로 해안에 인접해 있어 멀리 장항까지 내려다볼 수 있다. 1919년 3월 16일 만세운동을 벌인 곳이라서 정상에 기념비를 세워놓았다. 등산로는 주산면 주야리 주림산 마을에서 오르는 길이 가장 좋다.

○ 운봉산(雲峰山)

웅천읍과 주산면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336.5m의 산이다. 웅천읍 전체와 주산면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풍광이 좋다. 산의 정상에는 최근에 만든 정자가 있고, 성동리 쪽 골짜기를 둘러싼, 남포현의 치소를 보호하던 성동리산성이 있다. 등산로는 대창초등학교를 통하여 오르는 길이 가장 좋다.

○ 봉황산(鳳凰山)

대천동, 죽정동과 주교면 신대리 사이에 있는 해발 257.3m의 산이다. 시가지 근처에 있어 시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는 산이다. 산 능선을 오르면 시가지와 바다, 청천 저수지 등이 한눈에 보여 풍광이 좋다. 능선에는 정자(봉황정)가 있고, 산허리에는 신흥사, 대승사가 있다. 대승사 앞에는 전몰군경의 위패를 모신 충혼각이 있었다. 등산로는 흥화아파트 쪽에서 오르는 길, 대승사에서 오르는 길, 신흥사에서 오르는 길, 중보 마을에서 오르는 길, 종합병원에서 오르는 길 등이 있다.



백월산



아미산



운봉산



봉대산



양각산



잔미산



봉화산



오서산



주렴산



상사봉



옥마산



진당산



성주산



왕대산



봉황산

② 계곡

- 명대계곡 : 청라면 장현리, 오서산을 오르는 계곡.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갖추어 여름에는 찾는 사람이 많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속의 집 등 휴양시설이 있다.
- 화장골 : 성주면 성주리 동쪽, 성주산에 있는 계곡이다.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숲속의 집 등 자연휴양림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4계절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특히 여름에는 사람들로 붐빈다.
- 심원동 : 성주면 성주리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주차장이 잘 갖추어졌고 골짜기에 물이 많고 시원하여 찾는 사람이 많다. 식당이 들어서 있다.
- 백제골 : 미산면 도흥리, 아미산과 월명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골짜기가 깊고 물이 많으며 천연상태로 보존되고 있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전라북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다.

③ 호수, 저수지

- 보령호 :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준공한 댐으로 포장도로를 타고 일주할 수 있다. 물이 맑고, 주변의 아미산·양각산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다. 주변에는 중대암, 산암사, 금강암 등의 절과 삼사당, 수현사 같은 사당, 보령댐수몰기념관(애향의 집) 등이 있다.
- 청천저수지 : 청라면 서쪽에 있는, 대천시 지역과 남포면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큰 저수지이다. 저수지가 넓고, 물이 깨끗하여 많은 낚시꾼이 찾는 저수지이다.
- 성연저수지 : 오서산 서쪽의 청소면 성연리에 있는 저수지이다. 저수지의 수질이 좋아 많은 낚시꾼이 찾는다.
- 남포저수지 : 남포면 옥서리에 있는 저수지로 많은 낚시꾼이 찾는다.



보령호



청천저수지



성연저수지

④ 해양자원

- 녹도 : 대천항으로부터 25km의 거리에 있는 ‘사슴’이라고 불리는 0.9km²의 조그만 섬

이다. 80여 가구 250여 명의 비교적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어촌 마을이다.

- 호도 : 대천항에서 여객선으로 40분 거리에 있는 ‘여شم’이라고 불리는 1.3km²의 조그만 섬이다. 60여 가구에 200여 명의 주민이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며 생활한다. 해수욕장이 넓고 송림이 울창하며 물이 좋다.
- 삽지도 : ‘삽지’라고 불렸던 섬이다. 대천항에서 하루에 세 번 운행되는 여객선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다. 비교적 큰 섬으로 200여 가구에 500여 명의 주민이 어업과 농업을 한다. 넓은 해수욕장과 울창한 소나무숲이 인상적이다.
- 장고도 : ‘장곰’이라고 불렸던 장고도는 대천항으로부터 서북쪽으로 21km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100여 가구 300여 명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숲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 간석지가 넓어 양식업이 성하다.
- 고대도 : ‘고담’이라고 불렸던 섬이다. 100여 호의 가구에 3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식수가 좋아 예부터 주변 섬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소나무숲이 울창하다.
- 원산도 : 충남에서 안면도 다음으로 큰 섬이다. 주민의 3분의 2가 어업에 종사하고 3분의 1은 농업에 종사하며 480여 세대 1,360여 명이 살고 있다. 대천항에서 약 11Km 지점에 있으며 여객선으로 약 30분 거리다. 넓은 해수욕장이 있고, 봉화대가 온전하게 남아 있다. 연육교를 건설하여 대천항과 연결될 예정이다.
- 효자도 : ‘소재미’라고 불리던 섬이다. 대천항에서 8.7Km 떨어져 여객선으로 25분 거리에 있다. 섬의 면적은 1km²로 75가구 200여 명이 살고 있는 어업이 주업인 섬이다.
- 월도 : 보령화력 앞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면적이 0.45km²이고 15가구에 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보통 ‘달월이’라고 부른다.
- 육도 : ‘육섬’이라고 불리는 섬으로, 0.06km²의 조그만 섬이지만 23가구 60여 명의 비교적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 허육도 : ‘빈육섬’이라고 불리는 섬이다. 면적은 0.07km²이고, 11가구 30여 명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한다. 삼형제바위가 있다.
- 추도 : ‘빼섬’이라고 불리는 섬이다. 오천항에서 7.8km, 면적 0.08km²인 이 섬에는 가구 16호에 30여 명의 어민들이 살고 있다.
- 소도 : ‘추섬’이라고 불리는 안면도 영목항 맞은쪽에 있는 섬이다. 10여 가구에 25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조그만 섬이다.

- 빙도 : ‘빈섬’이라고 불리는 섬이다. 섬의 면적은 0.75km²이고 30여 가구에 1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방조제 건설로 주변 바다가 담수화되고, 연육교가 놓여졌다.
- 다보도 : 대천해수욕장 앞에 있는 ‘다슬기’라고 불리는 섬이다.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름철에는 대천해수욕장에서 유람선이 운행된다.
- 석대도 : 무창포 해수욕장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사리때 바닷길이 열리는 유명한 섬이다.
- 대천항 : 대천항은 해산물의 집산지이면서 동시에 원산도를 비롯하여 외연도, 삼시도, 녹도 등으로 떠나는 여객선의 출발지이며 도착지이다.
- 오천항 : 옛 충청수영이 있던 곳이라 문화유적이 많고, 잠수기어업의 중심을 이루는 항구이다.



녹도



장고도



호도



고대도



삼시도



원산도



효자도



소도



월도



다보도



육도



빙도



허육도



석대도



추도



오천항

⑤ 해수욕장

- 대천해수욕장 : 관광특구 참조
- 무창포해수욕장 : 관광특구 참조
- 원산도해수욕장 : 길이가 3.5km 폭 100m에 달하는 큰 해수욕장이다. 소나무숲이 울창하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 선촌 부두에서 마을 버스가 운행된다.
- 오봉산해수욕장 : 원산도 서쪽, 오봉산 남쪽에 있는 해수욕장이다. 깨끗하게 보전된 해수욕장이다.
- 호도해수욕장 : 길이 1.5km의 해수욕장이다. 모래의 질이 좋고, 주변 환경이 자연 그대로여서 많은 피서객이 찾는 해수욕장이다.
- 용두해수욕장 : 대천해수욕장 남쪽 약 5km 지점에 있는 해수욕장이다. 규모는 작은 해수욕장이나 소나무숲이 울창하고 모래의 질이 좋다.
- 삼시도해수욕장 : 삼시도 남쪽의 해수욕장이다. 백사장이 넓고 깨끗하여 많은 피서객이 모인다.
- 장고도해수욕장 : 장고도 북쪽에 있는 해수욕장이다. 등바루놀이를 하던 곳이기도 하다.
- 장안해수욕장 : 부사방조제 북쪽에 있는 작은 해수욕장이다. 생태보전지역인 소항사구와 인접하여 깨끗하고 생태계가 잘 보전된 해수욕장이다.



대천해수욕장



삼시도해수욕장



용두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오봉산해수욕장



원산도해수욕장



장안해수욕장



호도해수욕장

(3) 기타

① 석탄박물관

국내 최초로 1995년 5월 18일 건립 개관하여 석탄산업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석탄박물관은 광물, 화석 및 측량, 굴진, 채탄, 운반장비 등 3,800여 점의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다. 성주면 개화리에 있다.

② 냉풍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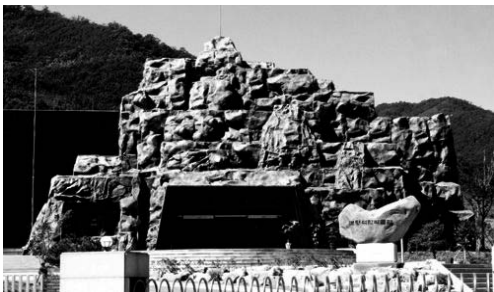
석탄을 캐던 광산에서 여름철에 나오는 찬바람을 이용한 시설이다. 양송이 버섯을 재배하여 판매하기도 한다. 청라면 의평리에 있다.

③ 개화예술공원

대단위 예술종합단지인 개화예술공원은 5만여 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다. 허브랜드, 음악당, 육필시공원, 비림공원, 그리고 모산미술관이 자리잡고 있다. 성주면 개화리에 있다.

④ 성주산휴양림

성주면 성주리 성주산 화장골 계곡에 있다. 화장골 계곡은 깊은 골짜기에 물과 숲이 어우러져 천연의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숲속길을 따라 49기의 시비(詩碑)를 세워 놓았다.



석탄박물관



냉풍욕장



개화예술공원



성주산휴양림

3)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재나 관광지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해설을 통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도입되었다.

(1) 연혁

- 2001. 01. 22 : 문화관광부에서 최초 사업계획 수립
- 2001. 01. 27 : 문화유산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계획 지침시달
(문화관광부→ 시·도)
- 2001. 10. 23 : 청양대학에서 문화유산 해설사 1기 양성교육 수료(9명)
- 2005. 08. 01 : ‘문화유산해설사’를 ‘문화관광해설사’로 명칭 변경(문화관광부)

(2) 활동상황

① 배치장소 : 대천해수욕장, 석탄박물관, 성주사지, 안내소 등

②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김광환, 김은숙, 김은진, 김향숙, 박미희, 성낙규, 유경조, 이금진, 이명희, 이인구, 이정자, 이향원.